

[종합·해설]

與 정계개편 논의 금물살

우리당 '통합신당' 새집 지을까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당의 간판을 내리고 새집을 짓는 '통합신당론'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가운데 친노(親盧) 소장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0·25 재·보선 이후 당내 저변에서 공감대를 넓혀온 통합신당론은 이날 당 지도부의 비대위 회의의 계기로 당내 논의의 대세를 자리잡았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내에 특별기구를 두고 통합신당 창당은 물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새관짜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여론의 흐름상 통합신당 논의 쪽으로 방향이 굳어질 형세다.

비대위 회의 이후 '신당론' 급선회

당내 주류세력인 정동영, 김근태계가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창당주역 중 한 사람인 천정배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당의 발전적 해체와 신당창당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천정배 의원은 2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정치가 동의하는 광범위한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합신당이 창당되어야 한다"며 "정계개편 논의를 담당할 특별기구를 당내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신당론의 확산에 친노 소장파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로 민주당' 식의 통합신당은 스스로 개혁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정략적 발상'이어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어려날 정계개편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고건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열린 2006 여성발명인 경기대회 행사에 참석,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로온 진을 구려 재창당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중진의원들도 '개

천정배 "특별기구 설치해야"

별적'으로 이에 가세하고 있다. 장영달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출범 자체가 원죄라고 생각 하는 창당 인사가 있다면 차라리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신당 추진 그룹내에서도 신당의 성격과 추진주체, 시기, 방법론을 놓고 계파간에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리당이 주도해 통합신당을 추진하자는 '질서있는 통합론'과 제3지대에서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 세력, 시민사회세력 등이 뭉치는 '해체모여식 통합론'으로 가닥 지어지고 있다.

친노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발

일단 당내의 전반적 분위기는 '질서있는 통합론'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우리당 주도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완전국민경선제' 개정안 금주 제출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100% 투표권을 개방하는 방식의 오

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9일 "주조 원내 대표단 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안으로도 오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우선 손질해야 할 조문으로 꼽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일장관 김하중·이재정 압축

■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 윤곽

국방 김장수·배양일·장영달 몰방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이종석 통일, 윤광웅 국방,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자 후보군을 2~3배수로 대부분 압축한 것으로 알려진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통일장관=김하중 주중대사와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장이 2배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져, 외교관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나로 선택의 방향이 잡혔다.

김하중 주중대사는 의무고시 7기의 외교부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부터 내리 5년 동안 주중대사직을 맡고 있다. 이재정 수석부장의 경우 참여정부 초기 교육부총리 물망에도 오르는 등 각종 장관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었다.

◇국방장관=후보군에 포함된 인

사들은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배양일 전 공군참모차장 등 군 출신과 민간 출신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대비된다.

유일한 현역인 김 총장은 참여정부 말기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방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뜻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배 전 참모차장은 그 동안 부각된 카드는 아니었지만, 참여정부의 국방장관이 '육군→해군'순이었다는 점에서 육,공군에 대한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인적 측면의 국방개혁이라는 면에서 검토되는 문민 국방장관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었다.

◇국정원장=내부 출신 국정원장 탄생이라는 면에서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 차장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공채 출신으로 32년간 국가정보를 다룬 명실상부한 '정보맨'이란 점이 감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정원 교체 인선 초기부터 빠졌던 이 후보로 거론돼 온 윤광웅 장관은 청와대 국방보좌관, 국방장관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읽고 있는데다 국정원장에 걸맞은 중랑감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받고 있다.

◇외교장관=시간이 갈수록 문민 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기용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후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에 걸려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때문에 김하중 주중대사와 유명한 외교부 제1차관이 외교장관 후보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

"유권자들,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해남·진도 보선 8% 득표 한나라 설철폐 "정치인들 대선 앞두고 입조심 해야"

8.2%(3천206표).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출마했던 한나라당 설철폐 후보의 성적표다.

고향인 진도만 놓고 보면 11.1%의 지지를 얻어 이번 선거의 최대 득표였던 마(黨)의 두 자릿수를 뛰어넘었다. 16대와 17대 총선, 이번 재·보선을 통틀어 한나라당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거둔 가장 우수한 성과다.

당 지도부도 고무된 표정이다. 강재섭 대표와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달라진 지역민심을 확인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대해 설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당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 같다. 주민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평가하며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매일



1천여명의 주민을 만났으나 약속을 거절한 사람은 세 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설 후보는 후보 등록 이틀 전에야 공천이 확정된 점을 아쉬워했다. "덧새만 났어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뒤늦게 뛰어내려도 당 조직 자체

가 왜냐하면 상대에서 출발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용갑 의원의 '광주는 해방' 발언과 관련 설 후보는 "진언이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큰 일을 앞두고 입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설 후보는 광주에서 총 사무처장과 (사)남도문화예술진흥회 부회장, 호남교육신문사 사장, 한나라당 전남도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featuring various lawyers and their specialties. Includes names like 김성근, 주기성, 박종욱, 송중원, 윤재효, 이상준, 남종우 and services like debt collection, divorce, and estate planning.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distan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rganizers.

Advertisement for 'BAT' (Bat) clothing, featuring a '23 inch' campaign and highlighting the quality and variety of their products.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offering preparation courses for public service exams, including civil service, agricultural, and police positions.

Advertisement for 'Daleo' (대리오) flooring, showcas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